

【붙임 2】 공모전 계획서

우리가 만드는 비교과프로그램 “우만비” 공모전 계획서						
구 분	내 용					
해당 영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생학습지원		<input type="checkbox"/> 진로·심리상담지원		<input type="checkbox"/> 취·창업지원	
프로그램명	CIEAT Ambassador					
핵심역량 (%)	C(창의성)	H(휴머니즘)	A(능동성)	N(공동체)	G(글로벌)	E(전문성)
	10	0	40	20	0	10
추진 배경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이 대내외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참여가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비교과 활동을 통해 인간적인 성숙 뿐만 아니라 경험, 자기소개서, 취업 등등에 도움이 되는데 이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른채로 학과생활을 하다 고학년이 되어 급하게 준비를 하는 케이스들을 종종 봐왔기에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목적 및 필요성	<p>우선 이 활동의 이름을 CIEAT Ambassador라고 붙인 이유는 비교과 프로그램 서포터즈이기 때문이고, 충북대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 관리 플랫폼인 CIEAT의 이름을 따와 좀 더 활동의 이름을 직관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었다. CIEAT Ambassador은 비교과 프로그램의 중요성, 홍보를 담당하는 서포터즈이다. CIEAT에도 물론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있지만, 대체로 학교의 인재상, 역량과 연관지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나 비교과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필수 활동이 아니라면 크게 어필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왜 비교과 활동이 중요한지 알려주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사람마다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와 성과는 다 다르니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취업, 자기소개서, 경험, 성장, 다양한 사람 만나기 등)</p> <p>또한 요즘 CIEAT에서 여러 비대면 활동들을 주차별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또한 CIEAT Ambassador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대외활동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이젠 학생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알려줘야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방식도 좋지만,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카테고리화 시켜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카드뉴스를 만들거나, 관련 있는 학과/단과대 별로 분류를 해서 보기 편하게 만들면 더욱 가독성이 좋고 학생들의 참여도 많아지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대내의 비교과 활동 뿐만 아니라 대외활</p>					

	<p>동도 소개하고 홍보도 메일에서 여러 SNS로 확장하면 학생들이 개인에게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 쉽게 볼 수 있고 참여율도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p>
세부 추진 계획	<p>필자가 생각한 CIEAT Ambassador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창의융합교육본부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방면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 활동을 최대한 많이 생각해보았는데, 여기서 수정하거나 줄일 수도 있다.</p> <p>1. 1학년 학생 대상 교육과 멘토링: 취업에 직관되지 않은 이상 비교과 활동은 대부분 저학년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고학년은 학점에 대한 관리, 취업 준비로 바빠기 때문에 저학년때부터 이러한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학년때부터 이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입생 때 이러한 활동이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지 못했고, 공지를 통해 알아도 참여 방법이나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이 태반이다. 대학교는 고등학교와 달리 누군가 하나씩 가르쳐주거나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스스로 해야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입생 대상으로 초반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 필자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RC로 비교과 프로그램 교육과 멘토링을 제안하려 했으나, RC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기숙사 학생으로 제한적이라 OT나 좀 더 참여가 자유로운 교육을 기획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교육에선 앞서 말한 대외활동이 중요한 이유, 예시 등등을 설명하고, 멘토(선배)를 몇 명 초청해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QnA 시간을 가지는 것을 생각했다. 물론 신입생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딱딱한 분위기 보다는 즐겁고 밝은 느낌의 교육을 진행하면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p> <p>2. 비교과 활동 (대내/외활동) 후기 공모전 추진: 여태까지 공부법 공모전, 인턴쉽 공모전은 열렸었는데 비교과활동에 관한 공모전이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실제로 에브리타임이나 여러 학생커뮤니티를 둘러보면 대외활동 추천글이나, 특정 대외활동에 대한 후기를 구하는 글이 많은데, 공모전을 통해 서로 좋은 활동을 추천하고 개인이 활동에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어떤 활동을 어떤 태도로 참여했으며 결과는 어떠한지, 어떤 성과를 얻었고 이외에 본인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등등을 나눈다면 가치있는 공모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1년이나 한학기에 한번 정도로 진행한다면 좋을 것 같고 우수작은 학생들에게 공개를 하며,</p>

	<p>소정의 상품과 상장을 수여하면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p> <p>3. 비교과 활동(학과별) 알리기, 해야하는 이유 (홍보): 앞서 목적 란에서 얘기한 내용인데, 여러 비교과 활동을 주에 1번꼴로 홍보물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소개하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카드뉴스가 가장 효율적인 홍보 방법일 것 같고, 교내의 비교과 활동 이외에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외활동을 소개하여 관심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현재는 메일을 통해 CIEAT측에서 꾸준히 활동을 소개하지만, 학생들이 더 자주 쓰는 에브리타임, 인스타그램 등등에 소개하면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한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홍보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홍보 내용은 비교과 활동을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비교과 활동을 해야하는 이유, CIEAT 등등 비교과 활동 참여 플랫폼 소개, 학과 별 도움되는 비교과 활동 소개 (이 때문에 CIEAT Ambassador은 다양한 학과로 구성되어야 한다) 등을 하면 좋을 것 같다.</p> <p>4. 피드백: 여태까진 필자가 생각하기에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는 몇가지 방법을 나열해 보았는데, 학생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 학기 별로 한번씩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아 주기적으로 회의하여 발전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p> <p>5. CIEAT Ambassador 특전/수료증 부여: 무엇보다 CIEAT Ambassador가 꾸려지려면 그에 걸맞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당연히 활동증서와 수료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여러 보상들을 생각해보았는데, 보통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것은 장학금이나 봉사시간이었다. 장학금은 예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봉사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수 Ambassador에게 시상을 한다면 다들 열심히 활동할 것으로 기대한다.</p>
기대 효과	<p>각 세부항목에 대한 기대효과는 위에서 대부분 설명하였다. CIEAT Ambassador의 기대효과는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핵심역량을 키워나가고, 충북대 인재상에 걸맞는 인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학생 개인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나가고, 취/창업, 앞으로의 여러 일들에 있어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 CIEAT Ambassador을 통해 많은 학생들의 적극성을 키우고 본인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p>